

브릿 어워드 주인공 아델 ‘감격의 눈물’

앨범·싱글상 등 4관왕... 신곡 ‘헬로’ 돌풍

영국의 팝스타 아델(28)이 '2016 제36회 브릿 어워드'의 주인공이 됐다. 아델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4관왕에 올랐다. 앞서 아델은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뒤 국제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정규 3집 '25'로 최고 앨범상인 '올해의 브리티시 앨범' 상을 받았다. '25'의 타이틀곡인 '헬로'로 브리티시 싱글상도 거머쥐었다. 또 '브리티시 여성 솔로 아티스트'상과 '국제적인 성공상'(Global Success Award)도 따냈다.

아델은 2012년 '브릿어워드'에서 제작인 '21'로 '올해의 브리티시 앨범'상과 '브리티시 여성 솔로 아티스트' 등 2관왕을 안은 바 있다.

아델은 '25'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앨범은 세계에서 지금까지 총 1500만장이 팔렸다. 3월5일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200'에서 1위로 복귀하며 총 9주째 정상을 달리고 있다. '헬로'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158일 기록을 제치고 87일 만에 조회수 10억부를 넘겼다.

지난 15일 미국에서 열린 '제5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앨범 발표일이 시상 대상기간에 들지 않았다. 내년 2월 '제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는 수상 조건을 갖춘다.

아델은 이날 최근 싱글로 공개한 '헬 위 워 영'을 불렀다. '그래미 어워드' 축하 공연 때는 기계 등의 문제로 음정을 맞추지 못해 혹평 받았으나 이날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델은 상을 받은 뒤 눈물을 펄펄 흘렀다. 영국 일간 미러 등에 따르면 4년 만에 '25'를 발매한 아델은 "그 동안 잊혀졌을까봐 겁박을 해야될 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면서 "비행기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토트넘 출신의 소녀로서 성공한 기분은 나쁘지 않다"며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 놀란다"며 "아이가 날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델은 앞서 '25' 수록곡 '스위티스트 디보션(Sweetest Devotion)'의 인트로에 자신의 아들 안젤로로 추정되는 아이의 목소리를 삽입하기도 했다.

그녀는 또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빅 북'의 미국 팝스타 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 눈길을 끌었다. 케사는 자신이 전속 계약을 맺은 음반사 케모사비 레코드의 작곡가 겸 음반제작자인 닥터 루크와 소송 중이다. 케사는 닥터 루크가 자신을 성격적으로 학대해왔으며 계약 관련 가져본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테일러 스위프트 등 여성 팝스타들의 케사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정해은 기자



아델은 상을 받은 뒤 눈물을 쏟으며 '헬 위 워 영'을 불렀다

예비 창작자들 다양한 작품 한눈에 '크리에이터 런웨이' 내달 3일 개막

'2016 크리에이터 런웨이(2016 Creator Runway)'가 오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문화창조벤처단지 α스테이지(지하 1층)와 α팩토리(9층)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미래 콘텐츠산업을 이끌어갈 예비 창작자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축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이 운영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프로젝트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육성된 34명의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영화, 공연, 웹툰, 웹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창작자 대표기관 및 멘토 등 총 3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3일 개막 행사는 창의인재 양성사업 중 하나인 '콘텐츠 창의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주)라이브의 '거위의 꿈'으로 시작된다. 혼혈 소녀가 가난과 차별을 딛고 가수로 성공하는 주크박스 뮤

지컬로 '투란도트', '빛꽃이리랑'의 유희성 감독이 연출을, SBS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한 가수 이미셀이 주연을 맡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박경자 α비카데미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예비 창작자들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화콘텐츠 분야의 빅딜러 콘텐츠가 탄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수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콘텐츠 창의프로젝트 지원 사업 ▲콘텐츠 청년창업 지원 사업 ▲기술기반 융합형 콘텐츠 창업인력양성(융합이카데미) 사업 ▲콘텐츠융합형 교육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의 창의인재양성사업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 창작자들의 작품 활동을 다양화하는 지원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액션 RPG '로스트 킹덤' 출시

네시삼십삼분(4:33)은 2세대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로스트킹덤'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29일 공식 출시했다.

로스트킹덤은 지난 22일 사전 오픈만으로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기록한 기대작으로 액션과 플레이 경험 등에서 기존 모바일 RPG를 능가했다는 것이 4:33의 설명이다.

4:33에 따르면 로스트킹덤은 기존 액션 RPG를 뛰어넘는 그래픽, PC 온라인 수준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마을 시스템, 다른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게임을 즐기는 MO(다중 접속) 콘텐츠가 특징이다.

음향 면에서도 기존 모바일 게임을 뛰어넘는 풀 3D, 90여개 음향 효과를 적용해 거리, 공간에 따라 다른 소리를 들려준다.

4:33은 로스트킹덤이 '블레이드 for Kakao', '영웅 for Kakao' 등 액션 RPG 성공 신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헐리우드 대형 스타(올랜드 블룸)를 게임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4:33은 로스트킹덤 출시를 기념해 게임 접속자를 대상으로 '추천하라', '공유하라', '획득하라' 등 다양한 선물 증

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고의 기사단을 추천하라' 이벤트는 게임 접속 후 이벤트 공지 내 추천인 이벤트 배너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추천 받은 순위에 따라 아이패드 프로, 샤오미 나인봇 미니, 스마트 빔 등을 선물로 증정한다. /정해은 기자



로스트 킹덤 홍보 포스터

고창서 KBS 교향악단 신춘음악회

봄을 맞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KBS 교향악단을 초청해 '신춘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3월 3일 오후 7시30분 고창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재)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으며 대한민국의 클래식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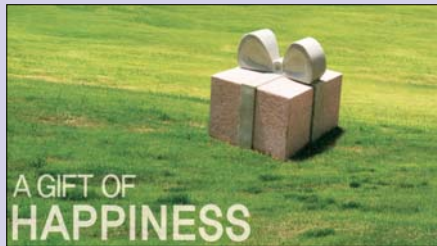
신춘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슈트라우스 2세의 오케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 중 '그대만이 유일한 내 사랑', 아르타티의 입맞춤, 조두남의 뱃노래, 이흥렬의 꽃 구름 속에,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등의 곡이 연주되며 테너 김세일과 소프라노 이지현이 협연한다.

2부에서는 대중에게 친숙하여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c 단조, 작품 67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지휘는 빈국립음악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전임지휘자로 활동했던 지휘자 여자경이 맡았다.

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고창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레퍼토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시작을 알리는 신춘음악회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성인 3천원, 학생 1500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gcc.kr>)나 문화의전당(063-560-80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어린이에게 행복의 선물을

남원 수지미술관 두번째 전시회 개최
3월 5일 ~ 5월 29일 6명 작가 초대

남원 수지미술관이 두 번째 전시회를 연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수지미술관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복의 선물展'을 3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는 동심을 주제로 아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유년기의 순수성을 느낄 수 있는 젊은 청년작가 6인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조각, 설치, 회화작품들을 선보인다.

김범준 작 '나도 행복하고 sheep', 김성수 작 '시간여행자', 남택수 작 '반딧불의 숲-아침의 노래', 박성하 작 '치유하다-복색리본', 이일 작 'ROBOT', 정성원 작 'Antic and Kodak' 등 출품되는 작품 약 60 여점은 봄의 기운을 느끼려 나온 시민,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행복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설치작품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것이다.

박상호 대표는 "행복의 선물展은 어린이들에게 미술 소양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전국의 유명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가족과 함께 전시회에 방문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2월 29일)

▷쥐띠
49년생: 다름 사람에게 선심을 쓰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운이다.
80년생: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운이다.
72년생: 작은 일은 가능하나 큰일은 다소 무리가 따르니 주의하라.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른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물을 얻었으면 하니든 보내야 하는 운이니 집착은 금물.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

▷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불 조심해야 하는 때. 위험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글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인행에 삼가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이기하니 조심하라.

▷소띠
49년생: 매사 큰 움직임을 삼가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마주하기는 하나 분주한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운이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 하는 사람이 나타나 는 운
65년생: 애상보다 상심이 증가될 수 있으니 삼가라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문 기민하라.
89년생: 큰 욕심만 무리치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반지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무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해질 것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나 앞으로 나이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뭄에 시달리다 답답한 만년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원형을 삼가라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때 때 불복음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니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문 기민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
90년생: 약의 값이 떨어질 때에 관한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

▷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좋은 상황에 놓였든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었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침범해 하는 소리가 도음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 결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통하면 절충하고 좋아하니 민생이치 마라.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71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83년생: 성급하게 행동하기는 일이 풀리지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95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